

굿네이버스 USA, 미주 한인교회와 식량위기 아동 급식 지원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가 성탄을 맞아 미주 한인교회와 함께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저개발국가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기근으로 인해 하루 1만2천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UN의 경고가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기근은 확산되고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될 인구가 올해 말까지 2억 7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굿네이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니제르, 에티오피아, 남수단 이 심각한 실정이며 최빈국에 속한 아이티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 인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에게는 더



굿네이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니제르 지역의 아동들 ©굿네이버스

욱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

기 위해 미주 한인교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굿네이버스 USA 이일하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모두가 힘

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굿네이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아동들은 식량위기로 인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

라며 “성탄에 그 기쁜 소식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후원은 개인적으로 10달러 후원도 가능하며,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여 굿네이버스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매월 10달러면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인 니제르의 아동 한 명에게 약 한 달간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찬양 사역자 조수아, 소리엘 장혁재 교수의 특별 메세지와 함께 찬양이 담긴 영상을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및 새벽기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r.goodneighbors.us/smal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후원 문의는 전화 844-357-7797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마리화나 합법화 하원 통과에 러셀 무어 “재앙적” 경고

최근 미국 하원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미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의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 등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벤티스트 프레스(BP)가 7일 보도했다.

BP와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 찬성 228, 반대 164로 ‘대마초 재투자·기록말소 기회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마초의 소지, 유통, 제조 등 관련된 전과를 말소하고, 형사 처벌도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또 연방이 정한 마약 리스트에서 대마초는 삭제되며, 대마초를 파는

경우 5%의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BP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처음으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은 5명만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러셀 무어 ERLC 위원장은 성명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약물 남용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현명하지 않으며 재앙적”이라고 밝혔다.

무어는 “마리화나 업계가 약물을 낭만화해 이윤을 얻기 위해 집착했던 행동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교회 가족들이 있다”면서 “목회자들은 그들

을 섬기면서 마리화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욕 버팔로 지역의 남침례교 목사인 댄 트리피(Dan Trippie)는 2019년 3월 ‘ERLC’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오락 용도(recreation-al)의 마리화나 조차도 사용자를 마비시키고 특히 취약한 사람에게 위협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리피는 당시 기사에서 “(사회적 불의로 인한) 청구서에 지불 요청을 받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웃의 선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옹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마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모임인 ‘대마에 대한 스마트 어프로치(Smart Approaches to Marijuana)’는 합법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마약 사용 증가’, ‘아동 및 청소년 유해’, ‘대중에 대한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대마 합법화 옹호자들은 하원 투표에 환영하고 나섰다. 마리화나 정책프로젝트(MPP)의 스티븐 호킨스 전무이사는 “마리화나 정책 개혁 운동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연방 의원들이 마침내 금지법 철폐를 지지하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의 말을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발표된 갤럽(Gallup)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8%가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의 49%와 매우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개인은 48%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대마초로가 알려진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 마약 정책에 따라 1급 마약류로 분류돼 불법으로 규정한다.

반면 36개 주 정부는 의료용으로 이 물질을 합법화했으며, 그 중 4개 주(뉴저지, 에리조나, 몬테나, 사우스 다코타)는 올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성인의 오락용 대마초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했다.

강연숙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 거주자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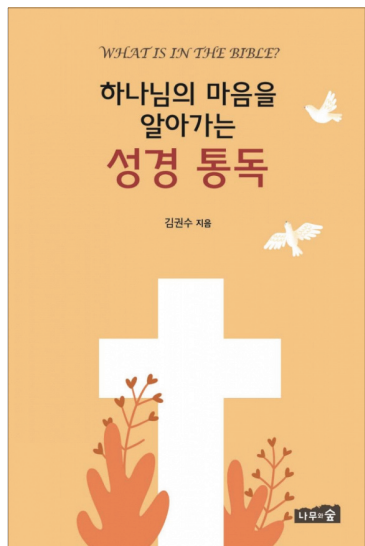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ANC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김권수 목사가 신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을 출간했다.

신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은 저자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주 지역과 나카라과, 이스라엘, 한국 등지에서 22회 진행한 성경통독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김권수 저 | 나무와 숲 | 379쪽

있다.

특히 성경을 통전적으로 설명하면서 신·구약 66권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순서대로 이해하기 매우 쉽도록 저술한 부분이 돋보이며, 마치 스토리텔링을 듣는 것과 같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은 따로 떨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독자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의 부분적 내용들을 하나로 꿰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깨달을 수 있게 할만 하다.

저자는 또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성경에 대한 친숙함을 더했으며, 성경 전체의 맥을 잡지 못해 하나님을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해 관점으로 알

기 쉽게 설명했다.

김권수 목사는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분들이 읽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쉽고 흥미롭게 쓰여졌다.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읽어 보거나, 이미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이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독을 권했다.

김 목사는 또 “성경의 일관되는 메세지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펜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며 “펜데믹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추천사에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세지를 성경 각 권을 통해 정립했다”고 호평했다.

김창환 목사는 (풀러신학대학원 코리아센터 원장)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에게 훌륭한 책”이라고 했고, 유진소 목사(호산나교회 담임목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태형 목사(LA ANC 온누리교회)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은 중요한데, 특히, 성경의 전체 그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아는 것은 영적 훈련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한편 저자 김권수 목사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198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25년 동안 전기공사를 운영하다 2010년 월드미션대학

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미)E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 2014년 풀러신학대학원 선교학 신학석사, 2019년 풀러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전적 성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주일 아침마다 ANC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마 통독학교(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학교)에서 전세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구입은 남가주 생명의 말씀사(714-530-2211), 한국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등에서 가능하다.



김권수 목사

김동욱 기자

미주 한인들 사후 시신 기증에 긍정적 반응

사후 시신 기증에 대해 미주 한인들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356명의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시신 기증에 대한 의견을 전화 인터뷰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9%인 281명이 사후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시신기증을 약속한 이들의 연령대는 70~8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40%)보다 여성(60%)이 기증에 적극적이었다. 또 사후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83%가 기독교인이었고, 7%가 가톨릭교인이었다. 또 미국 이민 기간이 길수록 시신 기증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시신 기증에 대한 이유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69%로 가장 많았고, 자녀들에게 장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로 뒤를 이



UC 어바인 캠퍼스 내에 세워져 있는 시신 기증자들을 위한 기념비

었다.

일부 고령층 응답자들은 “미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신을 기증하겠

다”며 “미국 정부가 웰페어는 물론

무료 의료혜택(메디칼 등)을 제공해 노후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니 사후 시신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며 이민 온지 40년이 넘는 한 모씨 부부는 ‘가족과 상의해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자식보다 부부 당사자의 결정이 우선”이라며 “땅에 묻히면 뭐하느냐. 시신일 망정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알츠하이머 등이 겹쳐 힘들게 투병했으나 지난 3월 끝내 LA의 한 요양병원에서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자니 윤씨도 사후 시신을 기증했으며, 그의 동생 윤종무 씨도 시신 기증 의사를 밝혔다.

자니 윤씨는 지난 2017년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소망 소사이어티에 직접 시신기증의사를 밝혔으며, 시신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UC 어바인 의과대학에 기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 방역수칙 위반으로 5만5천달러 벌금

맥클루어 목사 항소 계획, 연방법원 출석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백 명의 교인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법정을 모독한 죄로 5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에 위치한 갈보리 채플(Calvary Chaple)과 마이클 맥클루어(Michael McClure) 담임목사는 실내 모임을 제한하는 주 당국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내 예배를 드러왔다.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 피터 H. 커완(Peter H. Kirwan) 판사는 지난 8일, 갈보리채플교회와 맥클루어 목사가 법정을 모독

하고 11월 2일 내려진 임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려, 행정 명령을 위반한 건별로 2,500달러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받았는데, 그 총액은 5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클루어 목사는 법정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무조건 마스크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난 경찰관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러나 더 큰 법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따를



갈보리채플교회 마이클 맥클루어 목사. ©페이스북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맥클루어 목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다음 주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강혜진 기자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예배 금지 명령에 재심 명령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참작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주정부에 승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캘리포니아주 차룰비스타(Chula Vista)에 본부를 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예배 장소와 세속적인 사업장에 부과하는 제한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면서 “이 같은 차별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지방법원 신시아 바샨트(Cynthia Bashant) 판사는 이를 10월 14일 기각했고, 그러자 교회 측은 항소했다.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6주 만에,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예배 제한 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최근 대법관들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지사의 제한 명령에 교회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항소에 대해 판결할 때 이 같은 선례들을 참작한 것으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전경. ©구글맵

로 알려졌다. 3명의 판사들은 “하비스트 락 교회 대 뉴섬 주지사, 브루클린 로마가톨릭 교구 대 쿠오모 주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명령에 비추어, 지난 10월 15일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가 제기한 강

제 구제 요청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송부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 폴 조나(Paul Jonna) 변호사는 “대법원의 지점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주의 예배당 인원 제한은 노골적인 위헌이라는 것이 충분히 명백

하다”면서 “우리는 사우스베이교회가 단기간 안에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 속에서 그와 그의 일행 중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캘리포니아주 민들에게 가족들 외 다른 이들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뉴섬 주지사가 대부분의 실내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등 코로나 19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선을 넘는다며 시민불복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목회자 중 한 명인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예배 제한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미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선 상태다.

장지동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예스더대표), 송정명목사(복음번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항민목사(홍익은 대학이다), 유관지목사(홍익포럼대표), 김민식목사(KCC공동대표)

• 열의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예컨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 동족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6

“성탄절을 준비하는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풍경”

학기말 고사가 다 끝나고 이번 주간은 “특별세미나 주간”으로 보낸다. 엘에이 임마누엘 교회의 장현태 목사님이 특강 강사로 초대되었다. 물론 코로나 관계로 이곳에 오셔서 대면 강의는 못하고 줌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열강을 하셨다. “구약속에 나타난 복음과 계약”이란 주제로 창세기를 집중 분석 강해하는 시간이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처럼 전교생이 다 듣는 특강이라서 기초적인 성경주해부터 다소 깊이 있는 신학적 강해와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필자는 강사 목사님을 이번엔 처음 보았는데 30년 이상 목회한 경륜을 심본 활용하시면서 신학적 부분까지도 연결시키는 강의 방식이 좋았고, 특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였다.

원래는 한국말로 강의하시고 스페니쉬로 통역하기로 했는데 예정되었던 통역자가 어려움이 생겨 첫날 강사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영어를 스페니쉬로 통역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 한인 강사로서는 보통 부담되는 것이 아님에도 강사인 장 목사님은 한 주 내내 영어로 강의를 인도하셨다. 학생들의 강의 평은 영어 강의도 좋았고 스페니쉬 통역도 아주 좋아서 큰 은혜를 받은 좋은 특강이라고 두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스페인어로 성탄절을 “Navida”라고 한다. 기다림의 계절에 복음의 주체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도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학교는 매일 새벽기도가 있다. 학생회에서는 강당 왼쪽에는 대형 성탄트리를 반짝이는 램프를 달아 설치하였고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마구간 안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설치하였다. 제법 말구유같이 설치한 것까지 좋았는데 말구유의 아기예수를 어찌할까 하다가 아기인형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아기인형의 의상이 현대 의상이라서 아이가 또 하얀 백인이라서 몇몇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학생들은 한바탕 큰 웃음잔치를 펼쳤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도 필자는 꿈같다. 너무 행복하



이 상 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고 그들의 모습이 순진하고 순수하여 좋았다.

산호세 한인교회에서 학생들 앞으로 소포가 큰 박스로 7 박스가 왔다. 산호세 한인교회는 매년 학생들의 이름을 미리 묻고 그 학생들 이름을 써서 개별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보내온다. 60명의 학생들 각기의 이름을 붙여 선물을 준비해서 일일이 카드까지 직접 써서 보내주는 선교지를 향한 교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었다.

어제는 샌디에고 위쪽 동네인 팔로마 한인교회에서 마스크 박스와 겨울 옷가지들, 의약품들 등의 선물을 보내왔다. 선교사들은 옷가지 사이즈를 보면서 이젠 아무개 형제에게 딱 맞겠다. 저건 누구에게 어울린다 하면서 웃음을 각기 학생들 이름 앞에 놓아두면서 성탄 선물을 준비하였다. 그 모습도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기쁨의 모습인지 모른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국의 교인들이 직접 멕시코 선교지를 건너 오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마음은 전해야겠기에 이렇게 소포로 인편으로 선물을 보내오는 그 사랑을 우리 학생들은 깊이 느끼고 감사해한다.

고향 치아파스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에 그리움을 담아 눈물짓는 여학생들 모습, 자기 자매가 보고 싶어 전화로나마 대화를 하며 회포를 푸는 학생, 기혼자인 학생은 시댁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고생하는 아내와 대화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이번 주말부터 1월 10일까지 겨울방학이다, 학교는 아직 이 지역에 코로나 확진이 심하여 학생들의 외출이나 고향방문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른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자라는 학생회장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학생들 모습에서 필자는 내일을 본다.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1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찾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많은 체험을 합니다. 결국 빌립보에서 사역의 결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의 큰 위로가 됩니다.

고대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서편의 트라케(Thracia) 지방과 접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마케도니아(Macedonia) 지방의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빌립보가 실질적인 으뜸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주전 359년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던 정치가 칼리스트라토스(Kallistratos)가 그리스인들과 함께 건설한 도시로, 주변에 ‘샘’(우물)이 많아, ‘작은 우물’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Krenides)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2세가 이 도시를 정복합니다. 승리를 만끽하며 빌립은 이 도시 이름을 ‘크레니데스’ 대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Philippi)로 개명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온전과 금광(Gold Mine)으로 유명했던 빌립보는 당시 실력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 중심부에 넓게 펼쳐져 있던 비옥한 다토스(Datos) 평원의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네압폴리(Neapolis)항구를 통해서 에게해(海)로 진출할 수 있어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빌립보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국제 포장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의 도로상에 있어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정책적으로 식민지 도시화했습니다. 식민지 도시화는 지역의 중심 되는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 삼고 그 지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역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로마 정부의 도시 정책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로마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방의 많은 도시를 로마 직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로마 직할 식민지화의 가장 쉬운 방법은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로 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등도 이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직할 식민지는 특혜가 많았습니다. 우선 황제의 직할 도시였고, 면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통상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빌립보의 위상을 간파한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첫 선교지로 빌립보를 선택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서 정치와 경제 및 문화면에서 상당한 위상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같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는 매우 로마화된 도시로 로마법을 본 뜬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로마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렸으며, 무거운 공물납부의 의무 또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항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판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설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선고에 불복하고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비 시민들은 빌립보에 거주해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과 하층계급 사람

들은 송사를 당하면 정식 재판에 앞서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옷이 벗겨진 채 참혹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런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어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마 바울의 일행은 떠돌이 외국인으로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빌립보는 상업과 함께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다산과 풍요의 다이애나라는 여신의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혹자는 이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빌립보에서는 여자들이 더욱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빌립보 선교의 첫 열매인 루디아의 헌신이 부각됩니다. 루디아는 헌신 된 동역자였습니다. 아울러 빌립보서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할 즈음 로마 정부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로마와 유사한 특권을 누렸던 식민도시 ‘소(小) 로마’(mini-Rome)였습니다. 빌립보를 황제의 직영 식민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로마는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를 조성하고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빌립보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인기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정착하는 퇴역 군인 중에는 적군이 항복하여 로마 군인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교양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시 다운타운에 “시민답게 생활하라!”라는 표어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서 1장 27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시민답게 행동하라!)”라고 사용하며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World Share USA 연말연시 한 끼 나눔 캠페인

교회와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한끼의 식사가 간절한 중·남미 아동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성탄절 하루 만이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소액 기부도 환영합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월드쉐어USA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한달에 \$30/\$35 소액 회원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T. (323)578-7933 후원문의: 강태광 목사



청교도, 정통 기독교의 토대 구축



존 칼빈의 초상화(작가 미상) ©wikipedia

청교도들이 지켜온 기독교의 정통신학은 물론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의미했다.

청교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널리 확산시켰다. 경건한 훈련과 강렬한 신앙유지가 요청되었기에 헌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많았다. 영혼을 위해서 돈을 뿌리게 되면, 신령한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졌다. 1651년경에 이르르면, 약 2만 여명의 이주자들이 정착하였고, 30개의 타운이 들어섰으며, 각 지역마다 새로이 청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약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인구는 35만 명으로 늘어났고, 청교도 교회들은 약 5백여 개로 확장되었다. 청교도들이 세운 마을들과 도시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성취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첫째, 회심체험, 둘째, 칼빈주의 정통 개혁신학에 입각한 정통 교리, 셋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갖추고 있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사명감의 완수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회심체험이나, 윤리적인 생활은 매우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독교 정통신학을 정립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다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교도들이 지켜온 기독교의 정통신학은 물론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청교도의 핵심교리는 도전을 받았고, 논쟁의 대상으로 떠 올랐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과 잉글랜드 국교회의 어정쩡한 목회실체들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칼빈주의 예정교리를 받아들였다. 이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에 물든 잉글랜

드 국교회를 청산하는데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유용했지만,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도전을 받았다. 또한 교회론 부분에서, 각 개별적인 회중교회가 누리는 독립적 자주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각 교회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통신앙의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말았다. 각 개교회의 입장을 어디까지 관용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인가의 기준설정이었다. 그 한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청교도들이나, 국가교회에서나 참으로 복잡한 일이었다.

초기 뉴잉글랜드 교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서 논쟁할 때에 직면했던 문제들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두 사례가 등장하였다.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1603-1683)와 안느 허친슨(Anne Marbury Hutchinson, 1591-1643)의 주장들은 뉴잉글랜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

로저 윌리엄스는 런던에서 태어난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학하던 1630년대에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였고, 뉴잉글랜드로 건너왔다.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교회에 등록하기를 거부했는데, 여전히 국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반드시 머리에 천을 둘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존 코튼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그를 설득했지만, 극단적인 종교자유를 외친 까닭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로데 아일랜드의 프로비덴스(Providence) 지역을 개척하였다. 1639년에 프로비덴스에 정착한 후, 침례교회에 가입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도, 독립적인 교회관을 고수했다.

모든 청교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함을 받았다고 믿었다. 잉

글랜드에서나 뉴잉글랜드에서나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은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라고 말하는 체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다소 설교자들마다 차이를 드러냈다. 청교도들의 구원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였다.

청교도들의 주류와는 달리 상당수는 구원의 은혜를 남용하고, 구원의 확신을 왜곡하는 급진적인 반율법주의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다. 안느 허친슨은 초기 뉴잉글랜드 정통 신학자들과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1634년에 뉴잉글랜드로 건너온 후, 존 코튼이 목회하던 보스턴 제일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그녀는 선행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친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점을 믿었고, 인간의 반응이나 노력이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신념은 행위언약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에게 반기를 든 것이어서, 1636년에 반율법주의 논쟁이 촉발되고 말았다. 1637년 8월, 보스턴과 그 주변 목회자들이 케임브리지에서 회집되었는데, 허친슨의 반율법주의는 이단적인 견해라고 정죄했다. 보스턴 제일교회에서도 그녀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로데 아일랜드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뉴욕 롱 아일랜드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1643년 인디언 폭동으로 살해당했다.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최고 집행부에서는 금식과 기도의 날을 규정했다. 식민지의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존 휠라이트(John Wheelwright, 1594-1676)는 반율법주의 논쟁에서 핵심에 섰던 청교도 설교자였는데,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비서명파로 지내다가 1636년에 보스턴으로 건너왔다. 휠라이트는 청교도 정통신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새로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설교에 대해서 비판했다. 인간의 순종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하나님의 행위언약이라는 구조 안에서 시행한다는 점을 주시시키는 내용이었다. 보스턴에서 금식일에 설교하면서, 휠라

이트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들을 죽여라”고 강조했다. 휠라이트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의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휠라이트는 자신을 지지하는 스무 가정을 규합하여 뉴햄프셔 지역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행하고자 하는 한편,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징벌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람이시면서도, 정의를 실현하시려고 진노를 펼치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서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며,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청교도들이 자주 정통신앙의 근거로 참고했던 요한 칼빈의 저술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자애심이 강조되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리석고, 깨달음이 느리다고 깨우치셨는데, 여전히 청교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조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워싱턴 D.C. 대교구, ‘50인 예배 인원 제한’ 시장 고소

미국 워싱턴 D.C. 로마 가톨릭 대교구가 코로나 방역 조치 일환으로 예배당에 대한 50인 제한 규정 명령을 내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베크트재단인 베크트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유리엘 바우저 콜롬비아 특별구 시장을 상대로 대교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송문에 따르면 대교구는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대중 미사를 중단하는 등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컬럼비아 특별구와 협력했다”면서 “지난 6월 대면예배가 재개된 후 대교구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모범적이고 안전한 기록으로 이어졌다. 수천 건의 미사를 드렸지만 미사와 관련된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콜롬비아 특별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사 참석에 50명 한도를 부과했다. 평상시에는 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열릴 때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소송문은 “그러나 공공 도서관, 세탁실, 소매상점, 레스토랑, 문신 가게, 네일샵, 피트니스 센터와 기타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한인원이 아닌 수용 인원에만 기반한 제한을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바우저 시장이 최근 내린 코로나 바이



미국 워싱턴 D.C. 예배 제한 명령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캐피톨힐 침례교회. ©Wiki-media

러스 제한 명령에 따르면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1만명이라도 예배 인원은 50명을 넘을 수 없다.

워싱턴D.C.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대주교는 “다른 공공 장소와 비교하여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지난 3월 교회들이 실내외 대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마스크 착용 및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1백명 이상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워싱턴D.C. 지방 법원 판사는 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캐피톨힐 침례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야외 대면예배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 선교단체, 박해받는 中 기독교인에 성경 16만권 보내



선교단체 미션크라이가 중국에 보낸 성경책. ©미션크라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성탄절까지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서적과 성경이 담긴 선적 컨테이너 2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제이슨 울포드(Jason Woolford) 미션크라이 회장은 올해 이 단체가 16만권의 무료 성경과 350만 달러 상당의 기독교 서적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중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이 필요하다고 울포드 회장은 말했다.

그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부터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성경을 판매하는 상점을 폐쇄하거나 온라인 서점에서 성경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그들은 종교를 통제하려고 한다. 나치 독일처럼 국가가 승인한 교회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로의 성경 배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으로 성경을 배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이 나머지 중국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고자 홍콩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표현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 시품과 같다. 성경을 보낼 수는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그는 “홍콩은 성경이 중국의 다른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협력단체가 성경을 받으면 중국 본토로 보내진다고 한다.

울포드 회장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성경을 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전직 미 해병 출신인 그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전투라고 언급했다.

그는 “해병대는 전쟁이 있는 장소로 간다. 플로리다에 해병대를 보내지는 않는다. 올해에는 나머지 성경을 중국에 더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악마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지난 1956년부터 미션크라이는 3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178개국에 전달했다.

울포드 회장은 최근 선적물을 보내기 위해 미시간에 소재한 마 바이블 교회(Marr Bible Church)와 협력했다. 교회는 2천권의 미션크라이 성경을 보내는 것을 후원했다고 한다. 미션크라이 성경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첨부된 미국 표준 성경이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미션크라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삶에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이나 무언가를 제시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으로 보내진 성경과 기독교 서적은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쓰여졌다고 울포드 회장은 밝혔다. 중국 교육 제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중국 인구 가운데 1%를 차지하는 천만명 가량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기독교인들은 자국어보다 영어로 된 성경을 받는 것에 더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을 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은 크게 기뻐한다”면서 “홍콩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선적물을 받을 즈음에 큰 수술을 받았다. 그는 퇴원할 때 성경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교우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침례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오전 6:20(토)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어린교회를 책임지며, 아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과 Ed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일함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오후 2:00
오후 7:30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한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포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매배설)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종교개혁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는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전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 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목요침례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2부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7:30

금요일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2부예배
어린이예배
중고등부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沈語道經班：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조조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종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ia.org



송재호 담임목사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PASTOR SUNGWON 'SJ' JAHN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나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hurch.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방수민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윤대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성경공부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전 7:30 주일 성경공부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 895-5887 T. (626) 357-58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 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게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이종웅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 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중국 공산당, 초등 교사에 사회주의 종교관 교육 지시



지난 2014년 중국 저장성 원저우 시에 최근 세워진 산장교회에서 공산당국의 교회 파괴를 막기 위해 그 주위를 교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persecution.org

중국 당국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가르치고 무신론 교육을 강화하는 지침에 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중국의 종교 박해를 감시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 원저우시의 퉁완 학교는 공산당의 한 관리로부터 “어떤 신앙도 믿지 않겠다”는 교사의 약속(Teacher’s Promise to Not Believe in Any Faith)”이란 제목의 서식을 받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식은 교사들의 서명을 요구하며, 교사가 이행해야 할 4가지 지침으로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확고히 확립할 것’, ‘무신론 교육을 강화할 것’, ‘어떤 종교도 믿지 말 것’, ‘종교 활동 참여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종교를 가르치거나, 종교에 관한 정보를 퍼뜨릴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socialism)와 새로운 문명(new civilization)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인권단체인 ‘국제 기독교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은 공산당원들은 교사들에게 이 서식을 세 부씩 받아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며, 한 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두 장은 회의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모든 서식은 작성 날짜가 11월 30일로 미리 통일되어 있었다.

중국의 학교들은 정부가 통제하고 재정을 지원함에 따라 공산주의적 이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저장성(Zhejiang)은 최근 들

어 십자가 철거, 교회 폐쇄, 목회자 억류 등의 종교 박해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공산당은 이 지역에 이른바 ‘서구’ 사상에 대해 경고하며 종교 수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방 정부는 미성년자가 종교 활동이나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지역 학교에 다니는 기독교인 학생 300명에게 ‘종교를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한 학생들은 학급 대표로 선출될 기회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앙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교사가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밥 푸(Bob Fu) 차이나에이드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반대하는 ‘전쟁’에 돌입했다”며 “중국 내 기독교 어린이와 청소년이 350만 명이 있지만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푸 대표는 중국의 탄압이 유엔 인권선언 제18조 및 기타 국제협약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국제 사회는 이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종교적인 동기가 부여된 전세계적인 학대와 박해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 권리를 갖도록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오픈도어즈 USA가 꼽은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하나로 ‘월드 와치 리스트(World Watch List)’에 올라 있다.

김유진 기자

콩고 지하드 무장단체, 개종 거부 기독교인 30명 사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하드(Jihad) 테러범들이 마을들을 공격해 30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10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강간했으며, 교회 성도 여러 명을 납치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바나바스 펀드(Barnabas Fund)’에 따르면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과 연계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연합민주군(Allied Democratic Forces)’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북동부 키부(Kivu) 지방의 5개 마을을 급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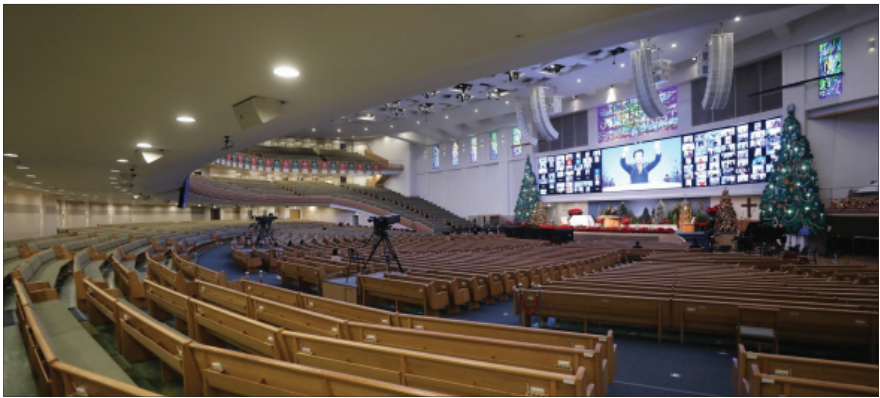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총, 칼, 도끼 등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은 5개 마을 각각에 있는 교회들을 에워싼 뒤 공격했다. 현지 당국은 테러범들이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살해 당한 30명 중 절반은 교회 2곳에서 납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상을 입은 14명의 기독교인들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졌다. 기독교인 생존자 중 한 명은 화장실에 숨다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한 목사가 이슬람 개종을 거부했다가 그 자리에서 일가족 5명 모두를 잃었다. 이 목사는 “그들은 아내와 네 명의 자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네 자녀들이 칼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사이에 아내의 머리를 찼다”고 진술했다.

무사 발루쿠(Musa Baluku)가 이끄는 ADF는 지난 2년간 콩고에서 가장 폭력적인 테러집단으로 진화했다. 이 집단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살인, 강간, 납치와 같은 범죄

본국 사랑의교회, ‘온라인’ 성찬식 생중계로 진행



사랑의교회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채 주일예배를 드렸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성도들에게 나눠준 성찬키트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13일 주일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현장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른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이날 성찬식도 드렸다. 교회는 성찬키트를 마련했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들은 주중에 교회에서 미리 받아 성찬에 참여했다.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생중계 예배를 드리며 줌(zoom)으로 참여한 성도들 가정의 성찬식이 생중계 방송 화면

으로 공유됐다. 오정현牧사는 ‘경결함의 회복’(스가라 13장 1~9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영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결의 샘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며 “새 언약의 백성들은 보혈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평생을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수도권 2.5단계... 25일 성탄예배도 ‘비대면’



지난해 국내 한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들은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이 8일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여서, 그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기독교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성탄절(12월 25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됐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나심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해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은 가족이 교회에 모이는가 하면, 예배당에선 대체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하지

만 올해 수도권 교회들은 이를 온라인으로 대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교회 목회자는 “성탄절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며 “그나마 대형교회는 사정이 관철을 테지만, 작은 교회들은 성탄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만약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28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현 단계가 유지 혹은 격상될 경우, 거의 모든 교회가 해마다 드렸던 송구영신예배 역시 이 지역 교회에서는 드리지 못하게 된다. 송경호 기자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령) 심리로 열린 이 총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그는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는데,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수원지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뉴시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총회장의 소송비용 마련에 의구심이 든다며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오전 8:00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중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넬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행함으로 생애를 세우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ai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서신 오전 9:30(금)
한어부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넬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t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

성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빌 2:7)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비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시고, 책임만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지도력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떠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떠남은 헤어짐입니다. 동시에 떠남은 새로운 만남의 전주곡입니다. 이별이 있을 때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천국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막 10:45). 예수님은 섬김을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섬김은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기쁨은 섬김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행복에 집착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나눔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움을 통해 나누셨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습니다. 비움에는 두 종류의 비움이 있습니다. 첫째 비움은 좋지 않은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를 비웁니다. 욕심을 비우고, 쓰레기를 비웁니다. 더러운 것을 비웁니다. 이런 비움은 나눔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둘째 비움은 아주 소중한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한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이신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판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낮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 2:8). 낮춤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따라 태어난 인간은 모두 높아지길 원합니다. 아담의 원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옛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창 3:5). 그 유혹은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춤은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채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우신 예수님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골 1:19).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총만했습니다(요 1:14). 이것이 비움의 신비입니다. 비우면 채워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비움은 비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채움은 나눔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채움이 있을 후에는 나눔을 통해 비워야 합니다. 비움과 채움, 그리고 채움과 비움은 일화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할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은 흐름에 있습니다. 채움만 있으면 그 흐름이 막힙니다. 흐름이 막히면 썩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비움만 있어도 그 흐름이 막힙니다. 비움과 채움의 흐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움과 채움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아이는 말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씀합니다. 제자는 말하지만, 스승과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소통의 내용을 담은 말입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진 현인들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수련 중의 스님은 공안(公案) 하나를 받아 묵상하거나, 아니면 고승의 ‘화두’(話頭)를 깨달아 선문답을 하여야 했습니다. 수도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여 인격의 일부를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인지라, 우리는 한 획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놀랍게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당시 그리스말로서 “로고스”(logos)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로고스란 이성(理性), 도(道),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나 원칙, 법칙, 사물 상호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 사고능력이나 정신”을 의미하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에게는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합목적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풍성하고 심오한 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낸 형상이요, 숨어있는 창조의 주재의 나타남이요, 더욱이 육체로 오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우주의 물질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창조의 지배자 모든 존재의 원리가 되시는 말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시다가 인간계에 아기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신성에 속한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을 체험

하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비추어진 빛이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믿으라” 도전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믿으면 알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고 확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신성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구원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 실존적 이유입니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교회의 북방 선교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만주 선교는 감리교회에서도 장로교회와 같이 시작하였다. 1908년 9월 제12회 남감리회 선교 연회는 간도 선교를 결정하고 같은 해 이화춘(李和春) 전도사와 매서인 2명을 북간도에서 용정을 중심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후에 장·감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이 지역을 캐나다 장로교회에 넘겨주고 이곳을 떠났다. 이후 1919년 배형식(裴亨湜) 목사가 현지를 시찰하였고, 이듬해 양주삼 목사와 선교사 크램(W.G.Cram, 奇義男)이 현지를 시찰한 후에 만주 선교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1921년 정재덕(鄭在德), 최수영(崔壽永) 목사를

파송하여 선교를 재개하였다.

미국 감리회(북감리회)에서도 만주 선교를 결정하고 1910년 5월 한국 연회에서 손정도(孫貞道) 목사를 북만주에 파송하여 전도케 하였는데 1912년 ‘가짜라수상 암살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국내로 압송되는 바람에 중지되었다. 그 후 1918년 내외국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배형식(裴亨湜) 목사를 파송하여 만주선교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1930년 미국 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통합되는 계기로 이듬해 12월에 만주 선교 연회가 조직되어 감리교회의 만주 교회들은 행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넓은 만주 지역을 장·감 양 교파가 함께 선교하는 과정에서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두 교회는 1924년 선교 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1924년에는 장·감 협의회를 조직하고 전도, 교육, 청년 사업 등의 협조가 이루어졌다.

1939년 9월에는 일제의 교회 통합 정책에 따라 장로교계 제만 한국인교회들이 ‘전만야소교장로회연합회’(全滿耶穌教長老會聯合會)로 통합되었다. 그 산하에 영구(營口), 안동(安東), 화북(華北)노회가 생성되었고, 1942년 만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만주 조선기독교교회’로 통합되어 일제

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해방 이후 중국과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만주의 모든 노회들은 자연히 소멸되고 말았다.

만주 지역은 기독교 활동이 무척 활발한 곳이기도 하였지만 이 지역교회들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과 독립군들을 음, 양으로 도와주고 활동할 수 있는 은신처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교회들의 민족정신과 항일의식은 그 어느 곳보다 더욱 강렬하였다.

만주 선교 역사에 있어서 봉천 신학교 문제도 언급하고 지나야 한다. 만주국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만주국 조선기독교연맹이 결성되자 자연히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봉천에 봉천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먼저 서탑교회 안에서 개교되어 교장에 정상인 목사, 교수로는 신사참배를 피해 도피한 박형룡, 박윤선, 그리고 일본인 국지일랑(菊池一郎) 등이 었다. 8·15 해방까지 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몽골에까지 흘러들어 간 동포들과 몽골인들을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는 1925년 감리교회의 최성모(崔聖模)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어려움 속에 선교를 계속하여 그가 그곳에 들어갔던

1925년에 내몽골(內蒙古)의 백음태래(白音太來)에 화흥교회(華興教會)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최목사는 이곳에서 선교를 계속하지 못하고 귀국하였으므로 일시 중지되었다.

다음으로는 침례교회 목사 이현태(李賢泰)는 몽골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이다. 그는 침례교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9세에 러시아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러시아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 해산된 뒤 무소속 독립 전도자로 만주, 몽골 땅에서 22년간 조선, 만주, 몽골 3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30여 곳에 교회를 설립하는 등, 몽골 전도의 사명을 띠고 한국인 방범룡(方範龍)과 중국인 이달고탁(李達古鐸)과 함께 몽골인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는 몽골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살면서 전도하여 신자 400명에 예배 처소 4, 5처를 세우고 성경학원을 세워 전도인 양성에 힘썼다.

이 목사는 독립 선교사로 선교하였기에 재정적 후원자가 없어 무척 꺾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전도하였다. 부인과 자녀들이 기아로 인한 영양부족으로 결국 아이는 굶어 죽고 말았다. 몽골인들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 속에서 마지막까지 전

도하다가 1938년 10월 몽골인에 게 맞아 병석에 누웠다. 그 후 이목사는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몽골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지 몽골 땅에 그 시신을 묻었다. 그러나 그가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남겨둔 부인과 자녀들은 아무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고 김민서 목사는 한탄하는 글을 남겼다. 그 후 동아기독교교회는 이충신(李忠臣) 등을 보내어 일제 말엽까지 계속 선교 하였다.

1935년에는 내몽골과 열하(熱河)에 있는 동포들이 장로교 총회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였으므로, 총회는 1935년 의산노회(義山老會)에 선교를 지시하였고, 의산노회는 이듬해 의산노회에서 분립한 봉천노회를 통해 조보근(趙普根) 목사를 내몽골에 파송, 전도케 하였다. 그는 통요(通遼, 통랴오)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여 많은 결실을 얻었다. 그러나 몽골에 설립된 교회들은 1941년 만주 기독교연맹에 흡수되었다.

몽골 선교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자연히 소멸되었고, 반세기 가 지난 후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면서, 이제는 조금씩 몽골 땅에도 다시 선교의 길이 열려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교회용 물티슈
 미그린8 물티슈
 목회용 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8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에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회개운동의 기폭제

에스라 10:1-17



서울성온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회개란 다른 곳을 향해 제멋대로 달려가던 인생이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기대를 앞세워 쫓아 살았으나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운동(悔改運動, Repent Movement)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으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의 불행과 비극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권위를 무시하며, 제멋대로 육체의 입장에서 살아가느라 영적인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서두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생활로 바꿨습니다.

페르시아(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면서 에스라는 그 시대에서 기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유식하고 촉망 받는 출세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더 심한 책罰과 시련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발로(發露,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냄)이기도 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본질적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2.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

B.C. 538년 제1차 포로귀환(스 1-6)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들이 2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육에 속한 모습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층 인물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예배하던 찬양대원들, 성전을 지키던 경비들 같이 성전에서 먹고 살고, 대접받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16절을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찌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미신, 우상에 물들어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選民,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라는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 여자인 아스낏과 혼인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낏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낳고 이방인이었지만, 남편인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같이했습니다.

약 400년 후에 있었던 모세도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면서 많은 애굽 문물을 습득했습니다. 그 후에 광야로 도망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의 일곱 딸 가운데 하나인 심보라와 혼인했습니다. 심보라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그 믿음을 같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원주민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기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연유로 이방 여인들을 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깃든 회개

하나님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많은 재물과 함께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키심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차 귀환으로 먼저 와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왜 혼인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쪽은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멸망하여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하지 말라”하셨는데 했으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 받은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은 자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죄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죄 값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는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

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그 에스라가 왜 그토록 애통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주받은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죄를 에스라를 통해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면서 서둘러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냐는 술선(率先,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하다) 해서 함께 살던 이방 여인을 그 자식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가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쳐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하며 의욕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 진실성을 인정받는 회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바른 목회를 하자고 애써오는 과정에서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지만, 온전한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총회를 열어 누구든지 3일 안에 다 모이도록 했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 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직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스 10:8)”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에게 준 특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

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직물하거나 옥에 가둘찌니라”고 에스라에게 특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삼 일 안에 모두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스 10:10-11)고 명합니다. 임으로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임으로 진정한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받아 그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 믿음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땐 자기 손을 잘라내더라도 그 죄를 정리하는 결단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죄악의 끈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2절에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고 힘써 이 일을 행하기로 답하고 석 달 동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112명 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삼브대가 저희를 돕더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스라에게 주어진 특권대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온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위성TV 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런>(下)**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한국 복음화에 전하는 ‘희망’

교회 양적 성장 멈춰도, 질적 성장 강화될 가능성
1인 가구 청년들 신앙 공동체 내부로 맞이할 기회
가족 형태 및 구성원 변화, 복음적 대처 고민해야

◆가족과 전통: 유교적 가정윤리의 자연스러운 해체

영화 <런>은 미국 현실에 일반화된 한부모 가족의 비밀을 둘러싼 서사를 전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사뭇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국내에서도 일반화될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일방적 구속과 가치 주입에서 '도망치라(run)'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들어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효(孝)의 가치를 떠받들고 장유유서의 질서를 중시해 왔다. 농경을 기반으로 한 씨족 중심의 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195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가치가 한국인들의 생존에 적합했다.

가정 내에 깊게 자리잡은 유교적 윤리지침에의 복속은 개개인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부모에 대해 불효한 이들, 그리고 연장자에게 무례한 이들은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지탄받고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곤 했다.

노년의 부모를 봉양하는 일,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극도로 중시하던 전통 역시 이러한 유교적 가족윤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책임은 한국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한국 가정 내부에 큰 긴장과 분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부모 봉양의 책임을 지버리는 일은 성경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로 지목된다. 하지만 유교적 기준에서의 부모 봉양이란 거의 부모를 하나님 모시듯 하는 일이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로 받들고, 부모를 위해 삶을 헌신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기력과 시간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다.

이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부모의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제사와 명절 차례는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책임으로 여겨졌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기독교 신앙과 크게 상충된다. 기독교에서 가족을 돌보는 임무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일생일대의 사명은 아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일은 신앙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범위 안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부모의 육신 봉양보다 영혼 구령이 우선시된다.

제사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망자에게 바치는 제물과 배례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

부모 봉양 책임은 오늘날 평생 고용과 정년 개념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과 자동화에 의해 일자리 감소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도 점점 비현실적인 윤리지침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장년, 노년 세대가 사회 자본과 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층에게 노년층 부양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추



미국 사회의 변화된 가족적 가치를 반영하는 영화 <런>.

세는 현재 전 세계 제1위의 저출산 동향과 맞물려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제사를 중시하는 전통 역시 대가족 해체, 도시화로 인해 많이 희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 내부에서 가치 충돌을 겪게 만드는 주 원인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대략 한 세대가 지나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과 신앙: 가족 형태 변화와 신앙의 자유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한 자녀 가족이 지배적인 가족 형태를 차지해 왔다. 그 한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청년층은 높은 생애미혼율(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6명 중 1명)과 이혼율을 보이고 있고, 합계출산율 역시 0.8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채 앞으로 한 세대(약 30년)가 지나면, 국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까운 친척도 없이 노년의 부모와 미혼의 한 자녀

만 남는, 그것도 자녀는 1인 가구로 따로 떨어져 사는 상황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1인 가구 세대가 노년이 되어 사망하는 시기, 즉 배우자와 자녀 없이 죽을 때가 되면 부모 봉양이나 제사는 개념조차 소멸하고 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얽매이는 관계,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수직적으로 귀속되는 관계는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신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자유의지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생존 조건과 경제적 여건이 개개인에게 이러한 추세를 강요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기에는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 부모와 자녀 간 수직적 관계의 약화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격 간 질서를 교육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실의 부모-자식 관계란 근본적으로 신-인 관계의 예표로서 자애와 양육, 그리고 공경과 순종이 어울리는 질서를 유비한다.

이런 질서를 어려서부터 몸소 체득하지 못한 이들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는 성품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계의 인성교육 역량이 대단히 미흡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이런 우려가 배증될 수밖에 없다.

반면 부모와 자녀 간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약화되고 수평적인 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라나는 세대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 가족들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 복음화의 미래가 순전히 어렵지만 한 것은 아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은 멈추겠지만, 질적 성장은 강화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한국교회가 내부에 안고 있는 술한 부조리와 약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만일 한국교회가 진정성 있는 신앙 갱신을 이룰 수 있다면, 향후 가

족 해체의 현실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 내부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영화 <런>에 묘사된 부모-자녀 관계는, 물론 영화 설정상 거짓으로 꾸며진 모녀 관계이긴 하지만, 부모가 결코 자녀를 소유물 취급할 수 없는 미국의 사회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향후 국내에서도 갈수록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자녀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이런 추세를 입증하는 하나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인간 현실은 유기적으로 변한다. 교회는 성경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믿지만, 그 적용에 있어 현실의 변화를 감안해야 할 과제 역시 짊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일어나는 거시적 변화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대처하고 신앙 갱신의 기회로 삼을지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묘사되는 가족적 가치의 변화는 이러한 과제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계기로서 의미를 갖는 듯하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1인 가구 시대가 일반화되는 향후의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존중의 수평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영화 <런>은 향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던져주는 복음화의 과제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미디어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영화 <런>은 수직적이기만 한 부모-자녀 관계에 배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발한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정말 소중한 것들은 숨어 있다

평생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실천 단계



감사 인생
김도인, 이재영
목양 | 260쪽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여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하루만 감사하면,
한 달 감사한다.
한 달 감사하면,
일 년도 감사한다.
일 년도 감사하면
평생을 감사한다.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감격이 되고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만족이 된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고난의 뒷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
님 향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
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별하려고 할
때, 여우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 알
려준다.

“잘 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
것은 단순해. 무엇인가를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거
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
지 않는단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
람에게 받는 선물이 기쁜 것은 눈
에 보이는 선물 자체보다 보이지 않
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
게 숨겨놓은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
고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 요즘 불
평이 많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불
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
백이다. 이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
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감사했
기 때문이다. 우리도 아름다운 인
생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
다.

<감사 인생>은 설교 글쓰기로 유
명한 김도인 목사와 따뜻한 감성의
이재영 목사가 함께 집필한 책이
다. <감사 인생>은 어렵고 힘든 현
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만
든다.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
이다.

저자는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
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 감사다.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
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
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문제를 불들
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헤
매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

는 것이다.”
저자는 인생에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이 ‘불평 인생’을 ‘감사 인
생’으로 안내하는 안내서가 되었으
면 좋겠다.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
사하는 사람을, 항상 감사하는 사람
으로 만드는 생장점이 되었으면 좋
겠다.”

조건으로 감사하는 삶이 아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단서를 제
공한다.

그것은 ‘하루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하루 감사부터 한
달 감사, 1년 감사, 평생 감사로 점
점 범위를 넓혀간다.

1. 하루에 대한 감사

평범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 감사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영화
배우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특별
한 경험과 친한 친구들과 자주 가
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 것 중,
어떤 것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
들까? 심리학자들은 친한 친구들
과 어울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행복을 주
셨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
리는 감사할 수 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평
범함에 더해주시는 것은 더 큰 하
나님의 은혜다. 평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소원이
며 꿈이다.”

2. 한 달에 대한 감사

한 달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다. 한 달을 살 때는 하루를 30번
살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만
족스러운 한 달을 살려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이 있다.
“Never Give Up(절대 포기하지 마
라).”

한 달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여
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무의미한
여전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전함
이다.

“여전함으로 보내는 삶이 중요한
것은 여전함이 역전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3. 일 년에 대한 감사

한 해를 돌아보며 해야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1년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를 선택할 때 가능한 일이다. 저자
는 이렇게 말한다.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나에
게 슬픔이 없었겠는가? 아픔이 없
었겠는가? 하지만 나는 항상 감사
를 선택했다.”

저자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유를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 그러
나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
사할 수 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
시는 주님의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

욕심은 화를 부르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1년 감사가 가
능한 이유다.

4. 평생에 대한 감사

인생에는 고난이 많다. 평생 감사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저자는 고난이 우리를 진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물약은 으깨지고 터질수록 짙은
향기를 낸다. 포도주는 포도를 으개
서 강하게 짤수록 더욱 검붉은 빛깔
을 내고 깊은 맛을 품게 된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
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
루어 가는 은혜다. 고난의 뒷면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다.”

평생을 행복하는 사는 비결이 무
엇일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
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
려간다. 사막에서 탈진해 죽는 이유
는 눈에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신기루는 눈에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지친 사람
들에게 C. 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
교>에서 이런 조언을 한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
족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
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
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이
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는 것을 따
라가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
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여전
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
음에서 나온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
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
문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
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감사를
끌어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감사가 넘치는
길이기를 소망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찬양
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인생
이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픽사베이

www.marhlaw.com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www.marhlaw.com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 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or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4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88** +Tax or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199** +Tax or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02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